

1%에 맞선 99%



10월 15일(토)

오후 6시

점령하라!

시청광장에

모입시다



우리가 99%다!

분노한 99%가 광장을 점령하라!

1퍼센트 부자에게 세금을, 99퍼센트에게 일자리와 복지를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는 1980년대에 시작된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고한 사태였다. 규제완화, 금융자유화, 노동유연화, 부자감세 등으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주장의 정당성이 무너졌다.

경제 위기 이후 각국은 금융 부문의 무분별한 자유화를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금융 자본은 여전히 아무런 규제 없이 활개치고 있다.

위기의 부담을 일반 시민에게 전가하는 데 불만을 느낀 미국 뉴욕의 젊은이 10명이 처음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금융자본의 과도한 탐욕과 대다수 국민의 빈곤화를 규탄했다.

지난 10월 5일 노동조합이 가세해 한층 확대된 이 시위는 4주가 지난 지금 한층 더 커지고 있으며 10월 15일 행동의 날을 기점으로 전 세계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전 세계의 시민들이 처한 처지가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월가 점령시위대는 이렇게 주장한다.

"인간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들이 현 정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기업 경영진에게 과도한 보너스를 주고, 농업 독점을 통해 농업 체계를 파괴하고,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노동권을 침해하고, 대학 등록금 대출 빚으로 학생을 인질로 잡아 두고, 노동을 외주화시켜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임금을 삭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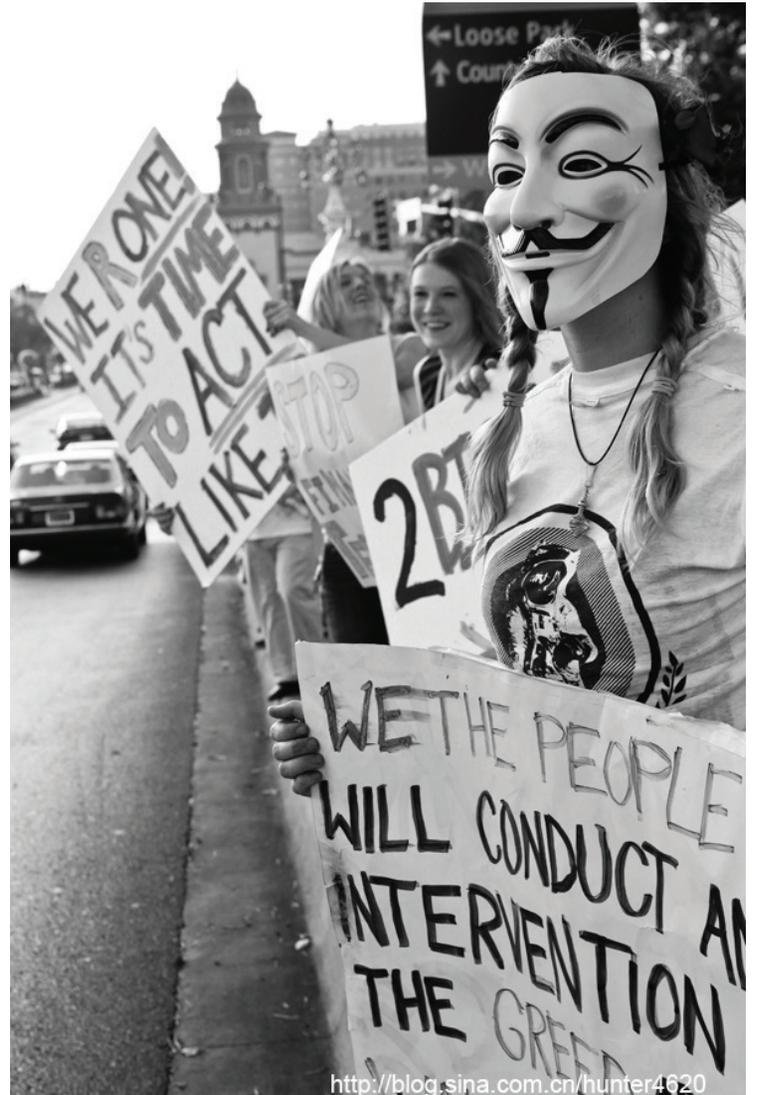
이는 한국의 상황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한진중공업과 김진숙이 그렇고, 1천만 원에 이르는 대학 등록금, 물가폭등, 전세대란, 공공요금 인상, 몇몇 대형 건설사만을 위한 4대강 공사 강행, 1퍼센트 부자만을 위한 한미FTA 추진 등으로 이 땅의 노동자, 농민, 대학생, 중소기업인, 서민 모두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현실이 그렇다. 미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전 세계적 움직임에 동참하고 한국의 절박한 국민의 외침을 모아내기 위해 10월 11일 한국에서도 투기자본감시센터, 보건의료단체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한미FTA저지 범국민, 민주노총, 전농, 참여연대, 진보연대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1퍼센트에 맞서는 99퍼센트, 분노하는 99퍼센트 광장을 점령하라. Occupy 서울 국제 공동 행동의 날' 준비모임을 구성했다.

10월 15일 저녁 6시 서울 광장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이런 취지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퍼센트 부자들이 아니라 99퍼센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가 행사에 함께하자.

99퍼센트 행동 준비회의

(민주노총, 한미FTA저지범국민,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한국청년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다함께, 청년유니온, 나눔문화, 사회진보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국민의명령, 사회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행동하는의사회, 아고라오프라인, 희망버스기획단, 금융소비자협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문화연대, 인뉴스, 안티MB 등 촛불네트즌 단체,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이윤보다인간을,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민주언론시민연합) - 참가 단체는 계속 추가될 예정입니다.



- 1퍼센트 부자들에게 세금을.
- 금융 자본을 통제하라.
-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을 당장 시행하라.
- 공공 일자리를 늘리고 해고를 중단하라.
- 공공요금 등 물가 폭등 통제하고 임금을 인상하라.
- 1% 부자만을 위한 한미FTA 비준저지
- 조중동방송 광고직거래 금지하는 미디어법 입법하라
- 미군 성폭행 등 범죄 방치하는 한미SOFA 개정하라.